

영광군, “오는 31일까지 주민참여예산사업 신청하세요”

읍·면 지역사업 총액 20억 원 한도 주민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내년(2023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군 정책사업 및 지역현안 사업 등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오는 31일까지 신청받는다. 군에서는 이전까지 군 정책사업 위주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주민들의 관심이 낮고 주민숙원사업 위주 사업을 선호함에 따라 민선8기 강종만 군수 취임 공약인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해 군 정책사업 외에 읍·면 지역사업을 총액 20억(읍면별 분배) 한도내로 확대해 본격적인 시행에 나섰다.

읍면 지역사업에 대한 결정 또한 읍면별로 자체 구성된 '읍면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을 검토, 심의해 사업을 선정하고 이를 군에 제출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게 된다.

참여방법은 군 홈페이지(정보공개→예산결산정보공개→주민참여예산)에 제출하거나 신청서를 내려받아 군청 기획예산실 예산팀 또는 각 읍·면 사무소(총무팀)에 제출하면 된다.

앞서 군은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이해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읍·면 순회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과 유튜브, SNS 등 다양한 홍보를 실시했다.

군 관계자는 “민선8기가 시작된 상황에서 주민이 행정의 주체가 되고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경률 기자

나주시, 공공 배달앱 ‘전남 떡깨비’ 소상공인 배달앱 중계수수료 대폭 절감

나주시가 소상공인들의 배달앱 수수료 절감을 위한 공공배달앱인 ‘전남 떡깨비’ 도입으로 상생 소비문화 정착을 도모한다. 최근 1인 및 맞벌이 가구 증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비패턴이 온라인·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배달앱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민간 배달앱의 경우 과도한 중계(배달) 수수료로 인한 소상공인 비용 부담이 심하게 공공배달앱 도입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대두돼왔으며 현재 전북, 제주를 제외한 광역시·도에서 공공배달앱을 운영하고 있다.

나주시에 따르면 전남 떡깨비는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영업이익, 소비자는 착한소비’라는 비전 아래 전라남도에서 도입한 민·관 협력형 공공배달앱의 명칭이다.

나주시도 앱이 출시된 지난 7월 14일부터 운영을 개시, 가맹 입점을

독려하고 있다. 소상공인이 전남 떡깨비 가맹점으로 입점하면 다른 민간 배달앱과 달리 입점료, 월 사용료, 광고비 없이 주문 중계수수료 1.5%만 부담하면 된다.

여기에 앱 상위 게시(노출)를 위한 홍보비, 배달업체 클릭 수에 따른 과금 비용도 없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각종 배달앱 수수료를 크게 절감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나주시사랑상품권’으로도 결제 가능하다.

공공배달앱 가맹점 신청은 떡깨비 홈페이지나, 업주용 ‘떡깨비 사장님’ 앱, 떡깨비 고객센터(유선)를 통해 받는다.

소비자는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전남 공공배달앱’, ‘떡깨비’를 검색해 내려받은 후 가입 절차를 거쳐 이용할 수 있다. /김동철 기자

장성, 인공지능 말동무 인형 지원사업 시범적으로 추진

장성군이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돌봄서비스 일환으로 ‘인공지능(AI) 말동무 인형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인공지능(AI) 말동무 인형 지원사업’은 경중치매, 우울증 등 고위험 독거노인에게 인공지능 인형을 배부해 약 복용 알림 등 일상케어뿐만 아니라 말동무, 위급상황 모니터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군은 보건소 및 읍·면 협조를 통해 사업대상자 30명을 발굴·선정하고, 해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인형 사용법 교육을 마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군은 노인돌봄인력을 일대일로 매칭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황별 대응 지침을 지속적으로 마련·보완할 방침이다. 또한 사업기간 종료 후 만족도 조사, 효과성 분석 등을 실시해 효과가 검증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말동무 인형이 어르신들의 건강·정서 관리는 물론 각종 사고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다양한 복지시책을 확대·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광중 기자



2022 화순 전국 학교대학 배드민턴 초등부 선수권대회가 화순을 뜨거운 열기로 가득 채웠다. 화순군(군수 구복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31일까지 하나움 실내체육관에서 2022 화순 전국 학교대학 배드민턴 초등부 선수권대회가 열렸다. /화순군 제공

화순, 전국 배드민턴 초등부 선수권대회 성료

105개 팀 700여 명 참가...범일초·진말초 우승 영광

2022 화순 전국 학교대학 배드민턴 초등부 선수권대회가 화순을 뜨거운 열기로 가득 채웠다.

화순군(군수 구복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31일까지 하나움 실내체육관에서 2022 화순 전국 학교대학 배드민턴 초등부 선수권대회가 열렸다.

단체전으로 열린 대회에 105개 팀, 700여 명의 초등부 선수가 참가해 열정을 불태웠다.

남자부에서는 범일초가, 여자부에서는 진말초A가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우승을 노리던 만연초는 아쉽게 동메달을 획득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어린 선수들이

열정적으로 경기에 임하는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았다”며 “12일부터 치러질 중·고등부 경기 또한 안전하게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 치러질 중·고등부 대회는 1천3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 화순의 막바지 여름을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남호경 기자

담양, 마음건강주치의 사업 추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 제공

담양군(군수 이병노)이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주치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전문의 상담을 제공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에 대한 편견과 비용 부담의 장벽을 낮춰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극적인 치료적 개입으로 군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최근 더맑은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전시형 원장을 ‘마음건강주치의’로 위촉했으며, 전화로 사전 신청하면 매주 수요일 오후 보건소 정신건강 복지센터에서 누구나 무료로 상담 가능하다. 상담 결과에 따라 증상과 진단에

따른 개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지속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정신의료기관 안내 및 등록 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언제 어디서나 주민들이 편안하게 정신건강 상담을 받고, 전문적인 도움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신건강 관련 문의 사항은 담양군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 상담전화(☎1393), 정신건강 위기상담(1577-0199)등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장진성 기자

청정갯벌 무안갯벌낙지

낙지의 고장! 무안을 말하다...